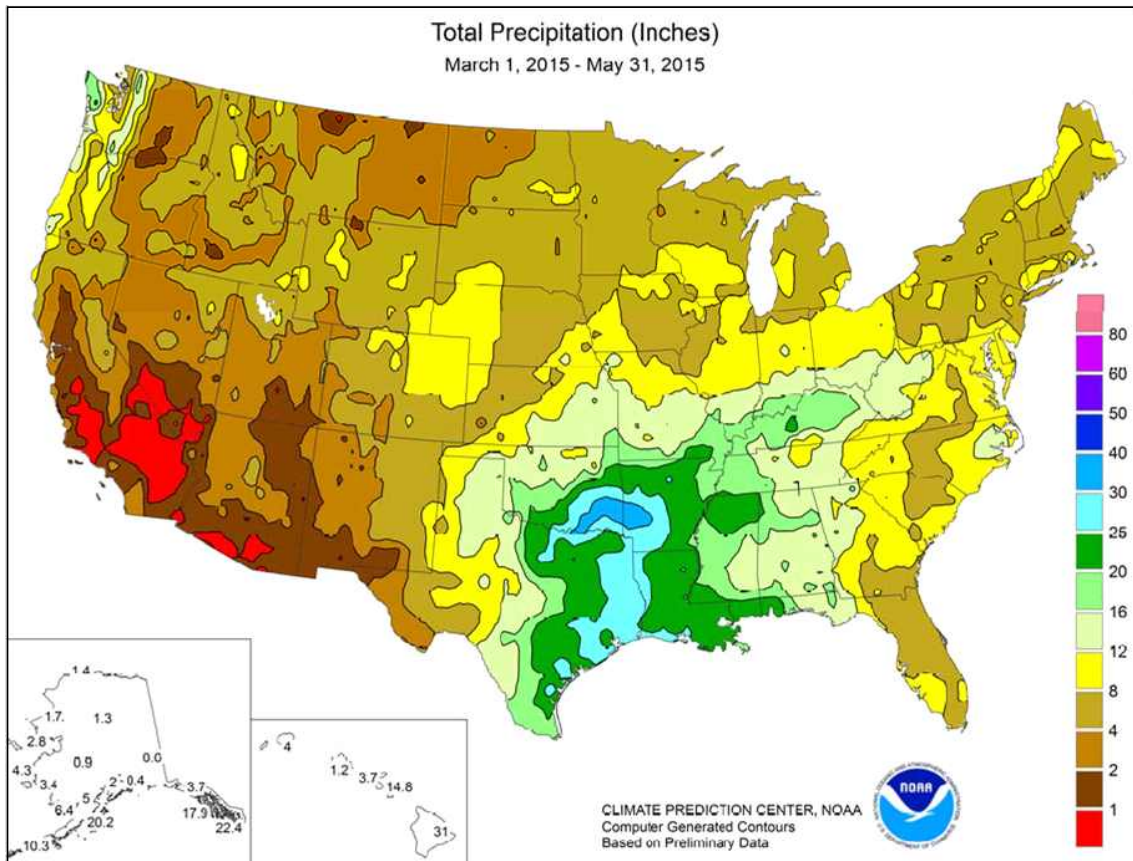


6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4)

□ 미국 기후 현황(6/7~6/13)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블랑카(Blanca)가 소멸되긴 했지만,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어 대평원과 남서부 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이와 대조적으로 북서부 지역은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과 북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0~15°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타, 아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네 개 주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 그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강우량이 2인치를 기록한 곳도 있는데, 이 때문에 새로운 작물의 파종과 기존 작물의 수확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북부 평원지대에서도 비가 흩뿌리긴 했지만 강우량은 1인치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2~4인치의 비가 내렸고, 저지대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다. 북동부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렸고, 남부지방에서도 때때로 강한 비가 쏟아졌다. 애플래치아 산맥 남부지역과 걸프연안의 중부, 동부 지역에서도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6/8~6/14)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특히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년보다 9°F 이상 높은 날이 지속되었다. 옥수수 재배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지만, 텍사스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6°F 이상 기온이 올라가기도 했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의 많은 지역에서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침수되기도 했으며, 플로리다에도 강한 비가 내렸다.

■ 옥수수

6월 14일까지 총 재배지의 97%에서 발아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앞선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2%p 앞선 상황이다. 콜로라도, 캔사스, 미주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발아가 90% 이상 진전되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p 낮은 상황이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에서는 비가 자주 내렸고 이 때문에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p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그리고 미네소타에서는 생육상황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2%p, 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겨울밀

출수율은 이번 주말까지 96%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년 동기보다 5%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7%p 앞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총 생산량의 11%에 해당하는 겨울밀이 수확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4%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9%p 뒤쳐진 상황이다.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텍사스의 수확율은 모두 2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되었다. 겨울밀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3%가 매우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3%p 높은 수치이다.

■ 면화

6월 14일까지 총 재배지의 9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파종이 끝났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3%p 그리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6%p 뒤쳐진 상황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5%가 매우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5%p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 동기보다도 4%p 높은 수준이다. 텍사스 지역에서는 최근 내린 비 덕분에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49%를 기록했다.

■ 쌀

루이지애나에서만 출수가 관찰되었으며, 지난 주말 출수율은 2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5년 평균보다 2%p 앞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이지만, 작년 동기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6/7~6/13)

■ 유럽: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고 이 덕분에 이 지역들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북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 중부와 프랑스 서부, 독일 남부 및 폴란드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달간 이어진 가뭄 끝에 강한 비가 내렸다(10-70mm). 이번 비는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생육에 단비가 되었지만, 겨울밀과 유채의 생육을 촉진하기에는 때늦은 비였다. 이탈리아와 발칸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렸으나(5-50mm), 지역 전역을 적시지는 못했다. 프랑스 북동부 지역과 폴란드 북부 등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뭄으로 생산량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1°C 높은 수준에 머물러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북부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소나기가 이따금 내려(2-25mm) 겨울밀과 유채 생육에 좋은 조건이 유지되었다.

■ 구소련(서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특히 최근 내린 소나기 덕분에 작물생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크라이나 중부지역과 러시아 남부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졌으며,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 덕분에(1~4°C) 겨울밀 생장이 촉진되었다. 낮 최고 기온도 30~33°C 수준에 머물러 햇빛에 의한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때때로 비가 내려 현재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남부지역과 Volga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한 덕분에 겨울밀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부지역에서는 지난 15일 내린 소나기로 옥수수와 해바라기 생육에 적합한 양의 수분이 유지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고, 북동부지역에서도 10~60mm의 소나기가 내렸다. 현재까지 내린 비는 평년 같은 기간 동안의 누적 강우량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준이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도 25-150mm의 비가 내렸고, Guangxi 지역에서는 400mm 가까운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비 덕분에 모내기를 끝마친 논에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저수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부의 쌀 생산을 앞둔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인해 농작업이 늦춰지기도 했다. Yangtze 계곡에서는 강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옥수수, 면화, 대두의 생육에 필요한 정도의 수분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 북부 고원지대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밀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옥수수와 면화 등의 파종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겨울밀 수확작업이 끝난 후에는 여름작물의 경작을 위해 비가 어느 정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 강우량은 지난 5월에 내린 비보다는 많은 50mm 수준을 기록했다. 남한에서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200-400mm).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북부 고원지대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 호주: 남부지역에서는 비가 흩뿌린 수준이며(1-10mm), 이와 대조적으로 밀 재배지역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서부 지역과 뉴 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가뭄 때문에 밀과 보리, 카놀라 생육이 늦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비가 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보다 1-3°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10~20°C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옥수수과 대두 수확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a Pampa, Buenos Aires에서부터 Santiago del Estero, Salta, Chaco의 서부지역, Formosa 등 북서부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반면, 북동부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10-50mm), Santa Fe 북쪽 지역과 Formosa 동부 지역에서도 25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중부지역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보다 북쪽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5°C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의 수확률은 55%, 콩의 수확률은 98%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0%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중부 브라질의 옥수수와 면화는 매우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이고 있다. 남부지역에서도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ato Grosso의 동부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북동부 해안 지역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10-100mm). Mato Grosso 북부지역과 Piaui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30°C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Parana 남부 지역과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강한 비가 내렸다(10-100mm).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비가 내려 사탕수수와 코코아 생육에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